

고령화사회 노인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 틀에 관한 연구

신 화 경(상명대학교 교수) · 이 준 민(상명대학교 박사수료)

오늘날 고령화 인구증가와 더불어 국민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주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인세대의 경제적 능력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변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택정책 및 복지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주거환경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인주거환경으로서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형태의 주거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고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를 반영한 노인주거환경에 대하여 관심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노인주거환경계획은 물론 기존 노인주거환경 평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주거환경을 노인이 거주하는 단위주택의 주거공간과 단지계획까지 연관된 구체적인 평가 틀을 도출하여, 향후 노인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주거환경 관련 문헌,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주거환경의 평가 틀에 대한 각 영역별 평가항목은 크게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틀은 특히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실내와 실외의 환경과 디자인 요소항목을 분석하였다. 주택의 실외는 주택전반에 대한 영역을 주택의 입지조건, 주택의 형태, 수납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에 대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주택 영역별로는 단지출입, 건물출입, 주차, 커뮤니티 공간, 자연친화 공간, 운동공간으로 구분하여 입구표시, 보차분리, 바닥 마감재, 통행과 주차유형, 보행로, 휴게 공간 휴게 시설, 운동기구, 놀이터 등의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주택의 실내는 크게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누어 개별공간을 침실, 거실, 부엌 및 식당, 욕실 및 화장실, 현관, 발코니로 구분하여 일반적 사항, 환경요소, 개구부에 대하여 실의 위치, 크기, 난방, 환기, 문손잡이, 조명, 색채 등의 세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공용공간을 복도,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로 구분하여 치수, 형태, 조명에 대하여 크기, 손잡이, 마감재, 조명, 색채 등의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편리성 등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할 노인주거환경 평가 틀을 바탕으로 노인주거환경이 노인의 생활을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사회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